opusdei.org

새 교황의 선출에 관 한 하비에르 에체바리 아 주교의 담화문

"오늘은 가톨릭 전 교회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" 하비 에르 에체바리아 주교

2005-5-31

오늘은 가톨릭 전 교회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. 전세계의 가톨릭 신 자들은 새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세 상에 보내주심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 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하느님의 자 녀들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시선을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맞춤으로써 그 분 안에서 빛과 평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.

저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푸스 데이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 교우들의 심정을 확실하게 표명하면서 저는 베네딕토 16세 교황께 우리가 깊은 친교로서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일치 할 것임을 확신시켜드리는 바입니다. 새 교황께서는 저희 사도직의 사명을 잘 알고 계시며 오푸스 데이의 창설 자이신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 의 유일한 열망인 성 교회에 봉사하 고자 모인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기 쁨 어린 노력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. 교황 성하와의 일치와 함께 저는 또한 오푸스 데이 의 충실한 회원들 모두의 기도와 애 정과 합하여 저의 깊은 자녀로서의 애정을 드리고 싶습니다.

신뢰가 가득찬 가운데 기다리던 요 며칠 동안 로마 교황의 막중한 책무 에 대해서, 가톨릭 교회로부터 요구 되는 그분의 사도직, 그리고 그분의 어깨에 놓여진 사명감의 무게에 관해 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. 이 러한 모든 것은 옳습니다. 하지만 우 리는 또한 이제 교황께서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어떻게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애정에 또한 선한 의지의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의 애정에 힘입을 수 있는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.

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선종과 신임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선출을 둘러싼일련의 상황은 수백 만의 사람들에게는 우선은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 요한 바오로 2세의 상실로부터 오는 슬픔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곧 새로운목자를 선물로 받게 된 기쁨을 통해서, 실로 신앙의 경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살아 있는 일치의 표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 새 봄

을 맞이하여 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당신의 후임자 교황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!

저는 또한 베드로의 새로운 후계자의 선출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만 끽하는 기쁨 속에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는,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경이적인 연속 성 앞에서 새삼 놀라게 됩니다.

+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sae-gyohwangyi-seoncule-gwanhanhabiereu-ecebaria-jugyoyi-damhwamun/ (2025-10-27)